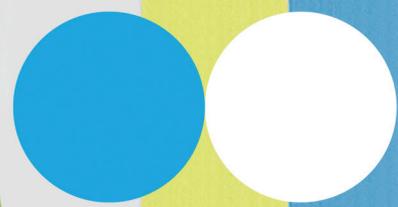


11

vol.113

2014

 **YTN**
INSIDE

당신의 미래를 엽니다
www.ytn.co.kr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Content 11

vol 113. 2014

IN

● In Newsquare

- 04 한정호 | 미라, 과학으로 베일을 벗다
- 06 박상준 | 지자체 주관방송으로 우뚝 선 YTN

● Exclusive Now

- 08 이경재 | 작은 '美美(?)'하니, 끝은 昌大하리라
- 10 장아영 | 선수 뒷전 된 아시안게임

● 일구는 사람들 _ Make Your YTN

- 12 이성모 | YTN의 드론(Drone), 멀티컴터
- 14 김현미 | 스마트DMB 홈~~런!
시청자의 합성소리를 기대하며...

● 핫 코너 _ 이 방송, 궁금하다

- 16 박성희 | YTNscience '한국의 맛'을 이야기하다.

● 미디어 클리닉 _ 이런 소리, 저런 시선

- 18 이재현 | YTN, 파괴적 혁신이 절실하다!



04



10



14

SIDE



표지

최윤정 작

사물을 보다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렌즈 달린 안경처럼 정론 매체로써 세상을 고루 살펴 응시, 발언 하라는 주문이 이입되어 있고, '공적 가치'에 방점을 둔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경 위에 각인된 YTN 로고는 바로 그와 같은 시청자들의 바람, 즉 조작되지 않는 YTN의 바른 지향성을 의미한다.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 · 시청자팀
121-904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 팩스 02.398.8585
디자인 · 인쇄제작 |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20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최윤정

- 20 홍경한 | 안경 너머에 담긴 세상, 이미지로 담아낸 욕망

● 앵커의 변신! _ 이승민

- 22 김시호 | 한낮의 뉴스! - 뉴스 & 이수 이승민 앵커가 특별한 이유

● 기자萬象 _ 최용호

- 24 봉정선 | 기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

● YTN 달인들 _ 최현식

- 26 김시호 | '컬러리스트'가 손보는 YTN 화면

● 낭만인 탐구 _ 김호성

- 28 김호성 | "재즈는... 힐링이다"

● Come Back YTN _ 류환홍

- 30 류환홍 | 노스캐롤라이나 거쳐 상암동으로

● 강연의 전당, YTN홀

- 31 김혜민 | 희망과 위로의 시간

● YTN 견학기

- 32 김경빈 | 더 나은 내일을 전하는 YTN을 견학하다!

● 촬영의 전당, 뉴스퀘어

- 33 SBS |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 상암도처有맛집

- 34 이은비 | 집밥의 여왕_퓨전 / 토종골_한식 / 히노키친_일식

● 컬처 스케치

- 35 2014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세바스치앙 살가두 GENESIS 2014 한국 전시 / 게시판



22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기 미라, 과학으로 베일을 벗다

한정호 팀장 |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학봉장군 미라는 2004년 대전시 목달동의 한 문중묘를 이장하던 과정에서 발굴된 남성 미라로 15세기의 생활습관과 병력(病歷) 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미라는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미라를 21세기 첨단과학으로 정밀·분석하는 지난한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보기로 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전하는 그의 메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겨진 단서와 진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가?

2년 전 취재차 대전에 있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미라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600여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 중 가장 오래된 학봉장군 미라는 보존상태가 완벽에 가까워 금방이라도 깨어날 듯 했다.



〈한국사 과학탐(探)〉 '미라,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는 이런 치밀한 기획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우리는 과학 탐구 프로그램의 특색을 철저히 살리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 자체 미라를 다룬 기존 방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에 두고자 노력했다. 제작과정에서 큰 행운도 따랐다. 대구의 한 국가산업단지 개발지에서 발견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묘제인 회곽묘에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미라를 만나게 된 것이다. 덕분에 미라의 발굴부터 수습, 분석 등 전 과정을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화면에 담게 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 이후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바탕으로 육안과 현미경 관찰,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의 방법으로 미라의 진실을 캐고자 노력했다. 학봉장군 미라의 위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분석 결과, 미라의 주인공이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먹고 민물 생선회를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밖에도 중증 폐질환을 앓아 아기부들 꽃가루를 약으로 먹었으며,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됐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낸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이다.

역사를 현대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매체에서 시도됐다.

하지만 우리는 문헌과 고증에 의존하는 역사 추리에서 탈피해 복원과 학과 물리·화학, 지질학 등 21세기 첨단과학을 활용해 역사가 품은 유·무형의 유산에 숨은 진실을 캐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선 첫 궁궐 경복궁의 비밀〉, 〈임진왜란의 숨은 병기, 승자총통〉, 〈금관의 왕국, 비밀을 풀다〉, 〈조선의 돌격함, 귀선(龜船)〉, 〈고분 축조기술의 진수, 왕릉〉, 〈토목과 건축의 백미, 미륵사지〉, 〈자연을 담은 도자, 분청사기〉, 〈세상을 깨우는 울림, 범종〉... 등의 명품 시리즈들이 이런 고뇌를 통해 탄생한 작품들이다.

〈한국사 과학탐(探)〉은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과학의 시선으로 역사의 미스터리를 추적하고자 기획한 연속 기획물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조들의 뛰어난 창조성을 재조명해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열악한 제작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흙에서 진주를 캐고자' 노력한 제작진 모두에게 이번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



2014 대한민국 지방발전 전략포럼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y Forum 2014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행복한 대한민국



지자체 주관방송으로 우뚝 선 YTN

— 2014 대한민국 지방발전 전략포럼을 마치고

박상준 | 네트워크협력팀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13년 11월 지역 광고 강화와 지역포럼 개최를 위해 신규 부서가 출범하였다. 지역 광고 강화와 지역포럼 개최,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하는 일이 달라 보이지만 모두 지역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지역포럼은 지역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2014년 초 기획되었다.

17개 광역시도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지자체는 각각 지방정부와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243개의 지자체를 네트워크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으나, 이는 각 지자체의 처한 현실과 입장이 달라 요원하기만 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243개의 지자체를 네트워크링 하기로 했다.

지방4대협의체에는 각각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는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부서 성격만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의사결정은 협의회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 주관부서인 안전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지역과 관련된 2개의 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입장이 이들과 같았다.

각각의 기관이 포럼에 참여한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내는데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참여조차도 각각의 기관이 YTN의 행사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이지 YTN을 포함한 8개 기관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동의는 아니었다. 이를 위해 8개 기관이 함께 서명하는 MOU 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도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없이 치러내기 위해서는 채 1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MOU 체결 날짜를 조율하던 어느 날, 세월호 사태와 함께 MOU 체결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안전행정부는 모든 업무가 스톱되었고, 심지어는 부처의 기능조차 큰 폭으로 조정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지방4대협의체가 새로 협의회를 꾸려야 하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MOU는 언제 체결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했다.

민선6기 협의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4대협의체의 일정으로 인해, 7개 기관이 정상적인 참여를 이뤄내지 못하고 회의만 공전하는 날이 이어졌지만 목표 도달을 위한 YTN의 활동은 이어졌다. '지역이 희망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7개 기관의 관심사를 담아내는 활동을 계속하며 포럼을 위한 전진은 계속되었다.

일련의 노력들에 대한 결과일까? 포럼 개최를 두 달여 남겨놓은 8월에 들어서며 MOU 체결을 위한 논의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드디어 각 기관들의 일정들을 조율하여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는 MOU(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정) 체결식이 9월 22일로 확정되었다. 포럼 개최를 한 달여 남겨놓은 촉박한 일정으로...

MOU 체결이 끝나고 포럼 개최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

기에 이르러서야 포럼 준비를 위한 YTN TFT가 발족되었다. 다들 너무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특보체제로 들어가면 다른 모든 일을 쫓겨두고 특집 방송을 만들어내는 YTN의 DNA 덕분인지 어느덧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하며 훌륭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참여형 포럼으로 인해 출연자만 80여 명에 이르는 험난한 섭외의 여정도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할 것 없이 제 일처럼 도와준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큰 무리 없이 이뤄낼 수 있었다. 현직 런던시장, 전임 뉴욕시장 등의 거물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포럼 개막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기초강연자였던 기 소르망이 희귀질환 판정을 이유로 입국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지만 어느 포럼과 달리 강연형이 아닌 참여·토론형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행사였기에 맞춤형 토론 등 알찬 콘텐츠를 자신하며 포럼 개막을 준비했다.

개막 시간을 맞춰내기 위해 특급 교통수단까지 동원해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포럼은 개막되었고 개막식과 주제강연, 주제토론 등에 뒤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맛짱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리허설을 할 수 없고 토론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생방송의 최강자라는 YTN의 DNA는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두 번의 맛짱 토론을 필두로 모든 세션에서 최고의 콘텐츠라는 찬사를 받으며 1박2일의 일정은 끝을 향해 달려갔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쏟아냈고, 방청객으로 참가했던 대학생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토론 내용을 정리해 소개하는 등 뜨거운 후기로 답례했다. 안전행정부의 고위 공무원도 '잘 마무리 정도가 아니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라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등 토론자, 방청객, 공동주최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며 포럼은 막을 내렸다.

1년 여에 걸친 포럼의 전 일정을 돌아보며 함께 해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지금, 개막식에 참여한 심대평 지방자치위원장의 축하 한 대목이 나의 심장을 뜨겁게 요동치게 한다.

“어느덧 지방자치단체 주관방송사로 자리매김한 YTN이...”



시작은 '美美(?)'하니, 끝은 昌大하리라

이경재 기자 | 보도국 스포츠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0일 아침, 부모님이 계시는 대전에 잠시 머물다 충북 음성군의 코스카 골프장으로 향했다. YTN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여자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KLPGA투어 제1회 YTN·Volvik 여자오픈.

최근 우리나라 여자골프, KLPGA투어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큰 성장을 이뤘다. 올해만 해도 1년 동안 대회가 26번, 총상금은 155억 원에 이른다. 김효주와 장하나 등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다른 프로 종목의 스타들 못지 않은 돈과 명예를 거머쥌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미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하는 선수들만큼 국내에서도 기존 선수들을 뛰어넘는 선수들이 잇따르고 있다. 선수들의 실력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올해에만 19살 김효주가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올랐고, 국내 유일의 LPGA투어인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선 김효주와 동갑내기인 백규정이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자골프는 선수와 경기라는 상품과 대회라는 시장, 그리고 팬들인 소비자가 서로 영역을 키워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이 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딱히 이름을 알려야 할 신생 회사도 아닌 YTN이 수익 원이나 들어 왜 대회를 주최했을까? 사실 이번 대회는 급하게 결정되고 준비했던 터라 전체적인 대회 운영을 맡은 미디어사업국과 후원사를 찾아야 하는 마케팅국은 한 달 가까이 비상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후원을 유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프로암 대회를 통해 유관 기관이나 광고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또 선수들이나 갤러리, 골프팬들에게 YTN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들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대회는 사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다. 에비앙 마스터스와 기간이 겹쳐 김효주와 장하나, 전인지 등이 출전하지 못한다 골프장이 충북 음성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 점은 아쉬웠지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청명한 날씨 속에서 선수들은 맘껏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갤러리들도 예상보다 많이 골프장을 찾아 대회 분위기를 더욱 북돋웠다.

초대 챔피언은 '필드의 시크녀'로 통하는 이정민 선수가 차지했다. 깨끗한 얼굴에 날씬한 체격, 그리고 국내 여자 선수 가운데 드라이브샷을 가장 멀리 날리는 '장타자'로 유명한 이정민 선수는 이번 우승을 통해 KLPGA를 대표하는 선수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시작은 '美美(?)'하니, 끝은 昌大하리라
YTN여자오픈도 매년 시원한 드라이브샷을 날리면서 한 해 한 해 내실과 전통을 쌓아가길 기대한다.



YTN · Volvik 여자오픈

YTN · Volvik 여자오픈

선수 뒷전 된 아시안 게임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장아영 기자 | 보도국 스포츠부



날씨가 유난히 좋던 개천절, 근대5종 마지막 경기를 보러 인천 드림파크행 버스를 탔다. 근처 야생화 단지에서는 국화 축제가 한창이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들, 닭꼬치를 손에 쥔 아이들, 늘어진 노점 등등 영락없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근처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인천아시안게임 광고를 크게 붙여놓은 버스의 운전사도, 길에 선 주차요원도 근대5종 경기장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시작 전부터 '비판받기 쉬운' 스포츠 행사였다. 태생부터 그랬다. 인천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창지지연설 동영상 을 도용해 유치에 성공했고, 대회를 유치한 시장과 준비한 시장, 개최식에 참여한 시장이 모두 다른 사람이었기에 대회를 이끌고 책임 질 사람도 없었다. 경기장 때문에 인천시가 빗더미에 오를 거라는 전망과 대형 스포츠 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속에 '뭐 하나 터지기만 해라' 모두 눈을 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막식부터 줄줄이 사

건이 터진다. 성화는 꺼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배달되고, 경기장이 정전되고, 자원봉사자들은 팬클럽으로 돌변하고... 현장에서 영어와 중국어, 일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하는 통역사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통역도 모자랐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선수들에게 영어 소감을 강요하는 바람에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아이 엠 베리 해피" 같은 한 마디짜리 소감과 수줍은 미소로 기쁨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 선수들이 소외된 건 경기장에서뿐만이 아니다. 대회 기간 동안 아시안게임으로 이슈가 된 건 경기 승패가 아니라 대회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였다. 아시안게임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많은 선수들에게는 혼신을 다한 경기, 값진 메달이었지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올림픽 같은 세계무대가 익숙해진 관중은 더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환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경기, 이미 유명한 스타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세팍타크로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대회 전, 관계자들이 관중 동원을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 일등공신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동남아시아 인기 종목을 보기 위해 몰려온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각국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펼치는 응원전도 볼만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일체감을 느끼지 않아도, 내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이기지 않아도 스포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안방에서 열리는 큰 대회는 그런 즐거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인천아시안게임과 그걸 보도했던 우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아쉽게

흘려보낸 것 같다. 그날 근대5종 경기장에서 촬영한 인터뷰는 결국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우리 선수들은 은메달을 따고 눈물을 쏟았다. 타고 있던 말이 장애물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게 패인이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그날이 아름답게 남아 있다. 수영과 펜싱, 승마, 사격과 마라톤... 아침에 시작한 여정을 마침내 끝내고 등 뒤에 석양을 받으며 결승선으로 돌아오던 선수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YTN의 드론(Drone), 멀티콥터

이성모 부장 | 보도국 영상취재1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일반적으로 '드론(Drone)'이라고 한다. 미군은 이 드론을 이용해 이라크 내의 이슬람 무장단체를 정찰하거나 공격하고 있어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다. 영상산업에도 언제부터인지 무인 촬영기인 드론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다.

미군에 드론이 있다면 YTN에는 멀티콥터가...

“조심~ 조심~”

차에서 내린 큰 기체를 농협대운동장 한 가운데 놓고 조종기 스위치를 올리자 빨강·파란색의 LED 조명이 번쩍거리면서 8개의 프로펠러가 '위~잉'하는 소리를 내며 돌았다.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기체는 별처럼 가벼운 몸짓을 하며 이내 가뿐하게 떠올랐다. YTN 전용 멀티콥터가 처음으로 하늘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쿼드콥터(Quadcopter)”.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쿼드(Quad)’이다. 멀티콥터는 회전하는 날개의 숫자에 따라 좀 더 안정적인 비행을 한다. 그래서 날개인 프로펠러가 6개면 ‘헥사콥터’, 8개면 ‘옥토크터’라고 한다. 이 모두를 통칭해 ‘멀티콥터’라고 부른다.

우리 회사에 이른바 ‘멀티콥터팀’이라는 명칭의 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영상취재2부와 중계부의 멤버들은 멀티콥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밤낮으로 모여 연구도 하고, 연습용이었던 팬텀2를 이용해서 조종도 해보았다.

이들 중에는 한때 구경꾼이었지만 조종자가 된 이들도 있었고, 조종자에서 구경꾼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멀티콥터를 하늘에 띄워 멋진 영상을 잡아내야겠다는 의지는 털끝만금도 변하지 않았다. 멀티콥터를 이용해 라이브를 해보자는 목표 의식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보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더욱 굳어졌다. 이런 과정에 안타까운 일도 생겼다. 영상취재2부 최영욱 차장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에어라인을 찾아 멀티콥터를 조립하고 셋팅하는 과정을 배우고 연구하다 급발진한 기체의 프로펠러에 왼손을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공식적인 첫 비행은 2014년 신사옥 이전 생방송에 맞춰졌다. 하지만 우리의 조종 실력이 미진한 상태였고 게다가 생방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매순간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주)에어라인 박재홍 대표, 김종배 이사의 도움으로 YTN 멀티콥터팀은 성공적인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 항공청이 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등록을 마쳤고,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방송에 활용하기 위해 광역시들과, 주요 지방도시의 항공 촬영도 마쳤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는 진도의 침몰 현장은 물론 팽목항, 안성에 있는 구원파 금수원, 서초구 염곡동의 유병언 회장의 자택과 그가 은거했다고 알려진 송치재 별장 상공에도 우리 멀티콥터는 어김없이 떠올랐다. 이 밖에도 잠실 일대의 싱크홀 현장과 세월호 사고 이후 순연됐다 다시 치러지기 시작한 각 지역의 축제 현장 등 그야말로 전국방방곡곡을 멀티콥터의 활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자는 물론 경쟁회사들의 영상인들 모두가 탄성을 지를 YTN만의 인상적인 항공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YTN 멀티콥터의 날개짓이 이제 시작됐다.



스마트 DMB 홈 ~ ~ 런! 시청자의 함성소리를 기대하며...

201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 삼성 vs. LG!
현재 9회 말 투아웃, 주자 만루!
가상 상황이지만 당신이라면
어떤 매체로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어쩌면 당신에게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줄지도 모르는
'스마트 DMB'는 이미
800만 다운로드수를 기록하며
'9회 말 투아웃 홈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김현미 | DMB 데이터서비스팀

가능성 하나! '고화질 DMB서비스'

DMB로 TV시청을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느껴봤을 화질문제! 자막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핸드폰에 코를 박을 태세로 얼굴을 들이밀거나 눈을 찡그려 영상을 보기 예사였다. 이에 지난해 말, 지상파DMB 사업자는 TV 시청의 영상 화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기존 DMB에 추가 영상을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마침내 고화질 서비스를 실현 시켰다. 사업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YTN DMB 주 도 아래 방송망 단독 고화질 영상서비스인 HEVC 송수신 표준 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다소의 시간과 물리적인 요소가 일부 남아있지만 시청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둘! '프로야구 문자중계 서비스'

2014년 프로야구 중계를 시작하면서 우리 데이터서비스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야구덕후(오타쿠의 인터넷 언어, 혹은 야빠)가 유독 많은 우리 팀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진지해 졌다. 기존 문자중계(예: 네이버 문자 중계)는 영상과 문자중 계가 별도의 화면에서 제공되고 있다. 문자중계를 쟁겨보다가 기막힌 역전 순간을 놓치기도 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TV방송과 데이터 방송의 동시 시청환경을 활용 해 TV와 문자중계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을 구성했다. 또한 다른 포털사이트의 문자중계가 기록원들의 딱딱한 멘트 위주라면, 우리 문자중계 서비스는 캐스터(곧 '나' 이기도 하다.)의 사심이 깊게 들어간 사심중계! 팬심(fan心)중 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재미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 팬 vs. 팬 대표 캐스터를 모집하여 동시 중계도 할 계획이다. 내 사랑 LG트윈스에 대적할 팀이며, 문자중계에 도전하라!

가능성 셋! '자막 뉴스'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TV 시청을 위해 작은 소리를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애를 썼던 경험이 있거나 목격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획한 서비스가 자막뉴스이다. 이는 YTN 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서비스로, 스마트 DMB를 이용해 방송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화면 하단을 활용해 자막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청 각 장애인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최근 닐슨 코리아의 <모바일 영상 애플리케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상 플 레이어로 유튜브 다음으로 DMB가 뽑혔다. 방송 플레이어에 서는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상 시청을 위해 라이브 중 심의 DMB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유저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 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DMB에 프 로야구 문자중계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평균 데 이터부가서비스 접속 시간이 약 4배 정도 늘었으며 평균 점유 율도 2013년에 비해 약 3%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미 한 가지 를 잘하기 보다는 다양한 멀티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DMB도 마찬가지다. 사용자의 시청 편 의에 무게를 두고 DMB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한다면 우리 스마트 DMB가 흥분을 치고 시청자의 커다란 함성소리를 들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신바람 나는 스마트 DMB의 앞날을 그리다보면 나도 몰래 입 가에 흐뭇한 미소가...



한국의 맛을 이야기 하다

박성희 겸임교수 |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맛있고 정감있는 음식 프로그램, 시끌벅적 수다스럽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고품격 프로그램, 유명하거나 커다란 음식점보다 규모는 작아도 알찬 손맛을 지닌 곳을 찾아 소개하는 맛깔스러운 프로그램.



전국 곳곳에서 어떤 식재료가 나고 자라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역의 대표 요리로 자리잡아 왔는지 살살이 뒤져 전달하는 과학적이면서 정성 어린 향토 프로그램,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과장된 제스처, “끝내준다”는 상투적 멘트에 의존하지 않고 긴 세월 오직 요리와 씨름하느라 굶어진 손마디와 주름진 얼굴을 지닌 이들의 소박하지만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진짜 다큐 프로그램! ‘한국의 맛’(연출 고성민 PD)은 이런 프로그램이다. 방송마다 내보내는 수많은 음식 프로그램과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국내 콘텐츠의 타 방송사 판매’라는, 흔치 않은 실적을 올린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일 것이다. ‘한국의 맛’이 시작된 건 2012년 12월. 배우 이민호를 닮은데다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유창림 PD가 첫 연출을 맡았다. 내레이터

로 합류한 건 그때였다. ‘오후의 교차로’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같은 KBS프로그램 고정출연자였다. 한 번 들으면 누구나 기억한다는 목소리만 믿고 성우로 뛰어들었다. 용기는 가상했으나 내레이션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ㄱ, ㅎ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소리가 속으로 들어갔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다. ‘없다’는 왜 그리 까다로운지. 안면이 있던 아나운서를 붙들고 물었다. 그는 “그게 원래 어렵다”며 “으와어의 중간쯤으로 다소 천천히 발음하면 된다”고 일러줬다. 그대로 해봤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방법은 공부와 연습뿐. 음식 이름만 보면 아무데서나 소리 내서 읽었다. 삼겹살, 김밥, 달걀밥, 재첩회무침. 배우 안성기씨에게 내레이션 비법을 캐묻고 장단음 구분을 위해 국어



사진을 뒤적였다. 더빙하는 날은 새벽 4~5시에 일어나 원고를 출력했다. 어색한 대목은 어순을 바꿔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뒤졌다. 모호한 상태로 읽다간 영락없이 NG니까. 유PD는 까다롭다. 작은 실수도 놓치거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봄 개편 이후 연출을 맡은 고성민PD는 ‘따뜻한 카리스마’의 대명사다. 부드러운 얼굴 뒤에 감춰진 치밀함과 치열함이라니. 여기에 원종훈, 김은희 음악감독의 섬세함까지. 높은 시청률은 덤이다. ‘한국의 맛’은 YTN science 제작팀의 열정과 체력(?), 제작 여건에 상관없이 최고를 만들겠다는 집념의 산물이다. 나는 믿는다. ‘열정에 끈기를 더하면 이긴다’고. 그리고 꿈꾼다. ‘한국의 맛’과 함께 나도 일류 성우가 되기를...



YTN, 파괴적 혁신이 절실하다!

이재현 교수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어느 때건 인간은 항상 자신이 사는 시대가 전환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뉴스 산업을 보면 지금만큼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때도 없는 듯하다. 인터넷 포털에 이어 스마트폰이 신문과 방송을 제치고 가장 큰 뉴스 소비 플랫폼이 된 이후 곧바로 종편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저질' 뉴스토크를 앞세워 그나마 줄어든 뉴스 시청자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방송 뉴스를 내보내는 채널은 YTN을 포함한 뉴스전문채널 2개, 지상파 3개, 종편 4개 등 총 9개에 달한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종편을 필두로 방송 시간을 옮기거나 늘리고, 새로운 포맷을 앞다퉀 실험하고 있다.

YTN의 상황은 어떠한가? 시청률이 뉴스를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넷 플랫폼에 뺏긴 방송 뉴스의 시청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KBS 9시뉴스는 17~20%를 유지하지만, 8시의 MBC와 SBS 메인뉴스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종편의 메인뉴스는 낮 뜨거운 선정적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경우는 그보다 못하니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YTN의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혁신 동력이 떨어진 데 있다고 본다. 최근 유출된 뉴욕타임스 혁신보고서의 '파괴적 혁신(Disruption)'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뉴스 회사들은 현실에 안주해 변화하는 뉴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 경험을 운운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다. 관행 전반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지만 현실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일까? 먼저 매시간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시사각각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뉴스 내용은 바뀌지만 구성과 포맷은 달라져야 뉴스 로얄티가 높은 시청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다.

몇 시 뉴스가 YTN의 메인뉴스인가? 이른바 (8시나 9시) '만남의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의 메인뉴스와 달리 뉴스전문채널은 (매시) '반복의 모델'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보도국 전체가 온 힘을 기울여 만든 아이টে를 다른 뉴스 시간에 미리 내보내 '신성모독'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반복 모델의 뉴스인 만큼 앵커는 프로그램 차별성을 좌우하는 포맷 못지않은 요인이다. 그리고 JTBC가 보여 주듯 뉴스 시청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YTN하면 떠오르는 앵커가 있는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앵커를 길러내고 있는가? 어떤 이미지의 캐릭터가 YTN과 맞는가? 현재 YTN 뉴스는 다른 신문과 방송 뉴스가 이념적 편향을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뉴스로 평가받고 있다. YTN의 가장 큰 자산인 이런 강점을 견지하려면 창사 초창기의 혁신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Choiyunjung_pop kids 11〉 부분 116.7×272.7cm, Oil on canvas, 2009



〈Choiyunjung_pop kids 38〉 100×80cm, Oil on canvas, 2012

우리는 언제나 고유한 경험과 습관, 관습, 문화적 모형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틀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구축된 창을 통해 사물과 사회를 인식한다. 이를 '주관적 이해의 사회학'이라 칭한다. 그런 점에서 작가 최윤정의 작업 속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야말로 개인에게 전유되거나 습관이 된 풍속과도 같은 주관적 사회학의 상징이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정한 심리와 색깔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관념으로 작용하는 '틀'인 것이다. 실제로 작가는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개인의 배경, 언어, 정치 철학, 미디어, 국가, 역사, 심리 그 밖의 문화적 특성의 어떤 측면을 지정하고, 현실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환기시킨다. 여기에 작가의 '이중적 반어'라는 미학을 덧입힘으로써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의 안경은 세상의 어떤 측면을 또렷하게 맞추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흐리거나 왜곡시키는 우리의 초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윤정의 안경이 의미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신적 거푸집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으며, 다수에 적용될 수 있는 매명의 가치관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만의 정형적 색깔이나 성향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도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익명의 대상에 묘사되는 이미지들은 근본적으로 '욕망'의 표상으로 같음한다.

기명되지 않은 얼굴과 안경 위에 투영된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너무나 익숙해 흔히 접하고 소홀히 지나치는 사물들이지만, 내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축을 이루는 동시대의 기표이면서 욕망의 아이콘이다. 만화 주인공인 미키마우스나 동화 백설공주를 비롯해 마이클잭슨과 같은 인기스타, 상업광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캐릭터 등도 같은 범주에 든다. 코카콜라, 햄버거, 스타벅스와 같은 소비재 역시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같이 이미지이면서 인간 욕구의 사회적 반영체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윤정이 그린 이번 표지 작품은 인간 욕망의 창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제언의 성격이 짙다는 게 인상적이다. 일례로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림 내 무명의 여성은 무수한 대중이거나 혹은 시청자일 수 있다. 미디어의 대상이 실은 실존하는 특정인이라기 보단 세상에 각인된 기표로서의 존재들에게 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 속 정지된 화면은 사사롭고 번잡한 세상사 모든 욕망의 실타래를 지시하며, 내적으로 멈춤이 아닌 '준비'를 나타낸다. 한편으로 무수한 이미지를 쏟아내는 창구이자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자체를 지정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물을 보다 섬세하게 고찰할 수 있는 렌즈 달린 안경처럼 정론 매체로써 세상을 고루 살피라는 주문이 이입되어 있고, '공적 가치'에 방점을 둔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경 위에 각인된 YTN 로고는 바로 그와 같은 시청자들의 바람과 YTN의 바른 지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윤정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 졸업
- 선화예술고등학교, 김포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성대학교, 협성대학교 강사 역임
- 국내외 개인전 9회·그룹전 70여회
- 주요작품소장처: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하이트진로 (서울), AnaPass (서울), YK BNC (서울)
- 레지던시 프로그램: 리인위미 창작스튜디오 (C.O.L. Art Management, 베이징, 2011)
- 콜라보레이션: LOTTE (서울), HITE (서울)

〈Choiyunjung_pop kids 12〉 90.7×116.7cm, Oil on canvas, 2009



〈Choiyunjung_pop kids 64〉 53×53cm, Oil on canvas, 2014



안경 너머에 담긴 세상, 이미지로 담아낸 욕망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한낮의 뉴스!

뉴스 & 이슈

이승민 앵커가 특별한 이유

매일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YTN을 보면 반가운 얼굴이 있다.
내추럴 메이크업과 단발,
그리고 간결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
여성 앵커하면 '언론인'보다 '예쁜 여자'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현실에서
그녀의 존재는 빛이 난다.
지적이고 원숙한, 그리고 신뢰감이 절로
가는 단단한 앵커, 이승민.
과연 그녀의 매력은 무엇일까?



정리: 김시호 | 방송작가
| 협찬 |
장소 /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02-3142-0010 / 0070
촬영 / 전경현 대표



Q. 좀 늦긴 하지만 가을 여자로의 변신, 마음에 들었나?

앵커의 변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다. 앞에 두 동기가 이미 콘셉트를 잘 잡아서 멋진 사진을 선보인 터라 부담도 됐는데 가을 여자라는 콘셉트는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좋았다. 덕분에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경치도 잘 감상했다 ^^

Q. '뉴스 앤 이슈'를 진행하고 있는데, 낮 뉴스의 매력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그래서 살아있는 뉴스를 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뉴스 & 이슈는 점심 시간대라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예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다양한 뉴스들을 시청자들이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Q. YTN이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

뉴스 시간대에 따라 시청자층을 분석해서 그에 맞게 프로그램 성격을 달리 했다. 그래서 종합 뉴스를 전해주는 시간대에는 다양한 뉴스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해 좀 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뉴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YTN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하는 과정인데, 시청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하다.

Q. 치열한 환경, 하지만 '앵커'라는 직업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YTN에 앵커로 입사했지만 정작 앵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는 편집부 PD를 몇 년간 하면서 깨달았다. 갓 입사해서 방송을 할 때는 그저 TV에 나온다는 사실이 좋았던 철부지 같은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부조정실 안에서 앵커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켜보고, 또 같이 호흡하다 보니 새삼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큰 그림을 보려고 했다. 몇 년 만에 앵커로 복귀했을 때는 두려움도 생겼는데, 지금도 그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고통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앵커'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다.

Q. 스스로의 역량을 쌓아가는 방법?

방송을 하다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땐 다른 사람이 하는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다. TV든 라디오든,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뉴스든 오락 프로그램이든 듣고 보다 보면 배울 점들이 보인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보면 해결책도 눈에 보이더라...

Q. 앵커 이승민과 일상의 이승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두 모습 다 '나'이다. 다만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회사에서는 앵커 이승민으로서, 집에서는 엄마, 아내, 딸 이승민으로...

아! 화면이랑 실물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상의 이승민은 길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Q. 앞으로 어떤 색깔의 앵커, 또 어떤 변신을 하고 싶나?

변신도 좋지만 난 늘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앵커가 되고 싶다. 대신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하고 싶다. 화려한 색깔의 앵커도 좋지만 늘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앵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입사할 때 앵커 소개란에 '10년 뒤 내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작유명을 썼어요. 입사 10년이 지나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니,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게 되며, '또 10년 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궁금해지네요"





기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

봉정선 | 영상취재1부 최용호 기자의 아내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채널 YTN”

1995년 케이블 TV의 개국과 함께 출범한 YTN의 로고송이다. 그렇지만 우리집 거실의 TV에서는 그 로고송을 들을 수가 없다. 자녀들의 교육을 핑계로 케이블TV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퇴근해서도 뉴스를 보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 저주는 척하는 남편에게 너무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가정에서 유한 남편이 종로구 수송동 사옥 시절부터 서울역 YTN타워, 상암동 뉴스퀘어로 이전을 할 때까지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묵묵히 많은 일을 수행해 나갈 정도의 성실성을 갖고 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그 덕분에 개구쟁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중2 아들, 고1 딸을 양육하며 생기는 갈등 상황에서도 내게는 조력자로,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권위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남편 뒤에는 YTN이라는 든든한 회사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에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 또한 함께 유지될 수 있었다. 감사할 따름이다.



입사 초기 남편은 총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IMF시절 회사 사정상 업무가 변경되어 영상편집팀으로 옮기게 되었다. 전혀 접해보지 않은 카메라와 편집에 대한 공부로 밤을 새우며 스스로 전문기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남편이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촬영전문기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모습은 세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그 같은 노력 덕분인지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에는 기자단 가족으로 초청받아 대통령 내외분과 사진도 찍고 청와대 가든에서 식사도 하고, 의정대 공연과 청와대 내부도 관람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국회 출입기자 시절에는 윤중로에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막내 녀석이 국회의 지붕에서는 진짜로 로봇 태권V가 나오느냐고 질문하기에 남편이 “그럼~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일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뚜껑을 열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 흔내준 후 다시 돌려보내 준단다”라며 이야기해 주었다. 막내는 아빠의 대답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국회 지붕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순수한 모습을 보였다.

남편의 직업은 국내, 국외로의 출장이 잦은 직업이다. 그로 인해 어느덧 난 남편으로부터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국내 출장인지 해외 출장인지에 따라 여행가방을 싸는데 달인이 되었다. 가끔은 내 짐도 옆에 싸서 더불어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남편은 “일과 여행은 달라, 당신은 여행하기 위한 여행을 가”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곤 한다. 그 위로를 통해 업무상 나가는 출장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출장이 부러웠다. ‘과연 어느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자라서 아빠와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뉴스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봐서인지 “기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남편이 뉴스로 방송될 영상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위험한 장소,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사건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가장 최근에 발생한 판교의 환풍구 붕괴사고 때에도 사고 현장과 빈소, 관계 기관을 오가며 촬영을 했는데 희생된 분들 중에는 남편과 같은 가장들도 계실 터인지라 빈소를 취재할 때는 매번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취재를 했다고 한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남들은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남편은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으로 향한다. 이렇듯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려고 묵묵히 애쓰는 남편을 보면 애뜻함과 함께 존경의 마음이 절로 생긴다. 매일 새로운 사건·사고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남편을 생각하면 애잔한 마음이 크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겨운(?) 직장 생활에 비해 활력 넘치는 직장 생활을 해 나갈 남편을 생각하면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기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과 그 현장에서 열심히 촬영한 화면이 뉴스를 통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든든한 마음을 안고 산다. 이는 나 외에도 일반적인 기자의 아내들이 모두 가질 마음일 것이다. 그 때문에 기자의 아내 중 누군가는 기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기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행운이고 운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Colorist
 '컬러리스트'가
 손보는 YTN 화면

최현식 종합편집감독 | 편성팀



종합편집실(이하 종편실)의 주된 업무는 PD들이 촬영해 온 영상에 효과를 넣고, 오디오 상태 체크, 최종 마감까지...시청자가 보게 될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전장의 최전선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최현식 감독(36). 그의 진행에 맞춰 종편실에서는 다양한 영상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최근에는 그를 찾는 PD들이 부쩍 많아졌다. 바로 영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찾아보기 드문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있는 종편 감독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컬러리스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죠. 영상 색 보정을 하고 있으면 바쁘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질 정도였죠. 지금은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컷의 색이 나가도 이 컷의 색이 맞느냐며 봐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컬러리스트란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색채 연출을 통해 이미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최 감독의 경우 잘못된 영상의 색을 잡아주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영상의 색을 맞추는 일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색채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 자격증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2년에 시작됐는데 저는 미대를 나온 덕에 이쪽에 관심이 생겼고 2007년에 따죠. 그때도 생소해서 자격

증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어요. 영상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는 1세대는 못 돼도, 2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

그렇다면 영상의 컬러는 왜 중요할까? 영상의 기본이 되는 색이 틀어지면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의 눈에 피로가 쌓이고, 또 정확한 영상의 색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최 감독은 아무리 피곤해도 색을 일일이 맞춰야 직성이 풀린다. 성격은 털털한데, 일에 있어서는 대중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왜 그리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지...

그에게 '컬러리스트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밝죠.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면 자격증이 많은 기회를 열어 줄 거예요. 컬러리스트가 되려면 우선 '감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력'. 책, 인터넷,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며 본인의 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또 안 좋은 것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아직도 '배움의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는 최현식 감독. 영상 색보정 분야에 있어 1인자가 될 때까지 방송의 질을 높이려는 그의 노력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리: 김시호 | 방송작가





“재즈는... 힐링이다”

김호성 본부장 | 웨더본부

2000년 8월, 난 남북이산가족상봉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있었다.
20세기 최고의 문화상품(?)이라는 카드섹션을
꼭 보고 싶었지만, 청년중앙회관에서
'춘향전'을 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다.
미 국무장관으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북이었다.
그녀는 수만 명이 운집한 김일성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보며 시종일관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정일은 그녀에게 가공할만한 스케일의 카드 섹션으로
마치 동영상 같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올브라이트 여사, 이것이 공화국의 마지막 미사일 발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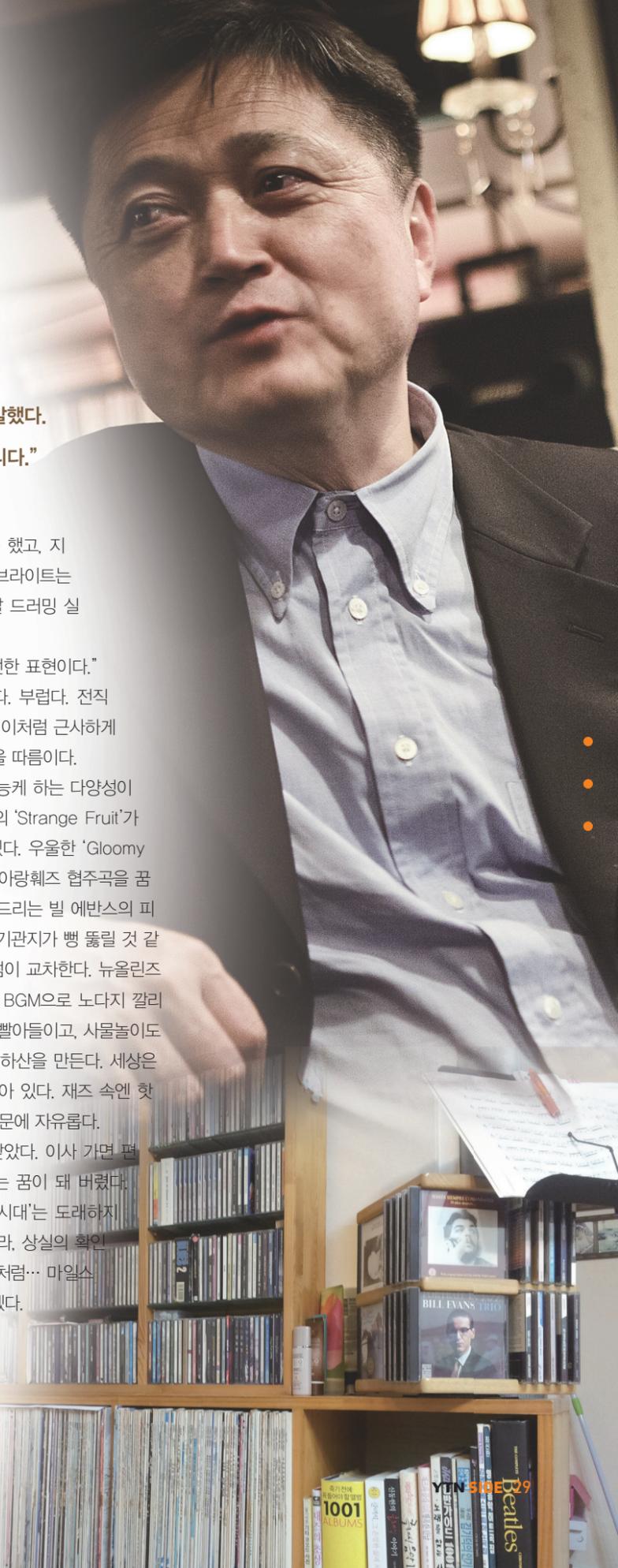
정말? 천만에! 북한은 이후 NPT를 탈퇴했고, 핵실험을 했고, 지
금도 여전히 미사일을 쏘대고 있다. 아인이 된 올브라이트는
2년 전 트럼펫터 크리스 보티의 무대에 게스트로 올라 깜짝 놀랄 드러밍 실
력을 보여준 뒤 이렇게 말했다.

“재즈는 체제 저항적이고, 자유로운 반복 악절은 민주주의의 완전한 표현이다.”
이 얘기대로라면 북한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재즈가 없단 얘기다. 부럽다. 전직
관료가 재즈 무대에 선다는 것도 그렇고,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이처럼 근사하게
음악의 한 장르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내가 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자유와 그 자유를 가능케 하는 다양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곳엔 인종 차별을 고발하는 빌리 할러데이의 'Strange Fruit'가
있는가 하면, 성적 코드가 난무하는 콜 포터의 'Let's do it'도 있다. 우울한 'Gloomy
Sunday'도 있지만, 찬란한 'What a wonderful world'도 있다. 아랑훼즈 협주곡을 꿈
꾸듯 연주하는 짐 홀의 기타, 'Waltz for Debby'를 통통 튀게 두드리는 빌 에반스의 피
아노, 웨더 리포트 파스토리우스의 으르렁거리는 베이스, 막혔던 기관지가 땀 뚝 질
같은 파커의 색소폰, 가슴을 쿵쿵거리게 만드는 아트 블레이크의 드럼이 교차한다. 뉴올린즈
딕시랜드도 있지만,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도 있다. NPR을 틀면 BGM으로 노다지 깔리
고, 자라섬 밤하늘에도 메아리친다. 클래식도 흡수하고, 가스펠도 빨아들이고, 사물놀이도
포용한다. “낙관주의자가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세상은
이 둘을 다 필요로 한다”라고 설파했던 버나드 쇼의 직관과 맞닿아 있다. 재즈 속엔 헛
과 쿨이 공존한다. 자유롭게 때문에 체제 저항적이고, 저항하기 때문에 자유롭다.



상암동 시대가 열렸다. 흥대 앞 '문글로우'는 문 닫았다. 이사 가면 편
하게 들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를 수 없는 꿈이 돼 버렸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아직까지도 '재즈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 기다림의 끝은 상봉이 아니라, 상실의 확인
이다. 아프다. 일상을 잃어버린 이상주의자처럼... 마일스
데이비스의 'Autumn Leaves'를 들어야겠다.

“재즈는, 힐링이다.”



노스캐롤라이나 거쳐 상암동으로



류환홍 부장 | 보도국 경제부

YTN이 송례문 사옥에서 상암동 신사옥 입주 준비하던 때 나는 미국 연수를 준비해야 했다. 기대는 컸지만, 아들과 단둘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돼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출발일은 점점 다가왔고, 어쩔 수 없이 아파트와 중고차를 비롯해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해 나갔다. 마침 현지 한인교회 성도 한 분이 도와주셔서 쉽게 준비할 수 있었다.

미국에 도착해 첫 한 달간은 운전면허를 따고, 아들을 중학교에 입학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들의 학교 라이드(ride)와 매주 금요일 UNC(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강의 출석 외엔 할 일이 갑자기 사라져 무료함이 찾아왔다. 그 무료함을 메우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다.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다 마침내 찾은 대안은 교회와 운동, 요리였다. 미국생활 1년을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자는 생각에 새벽기도와 성경 1독, 성경공부, 교회 청년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이 됐다. 또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 틈만 나면 함께 운동(테니스와 야구, 축구, 농구 등)을 하며 땀을 흘렸다. 아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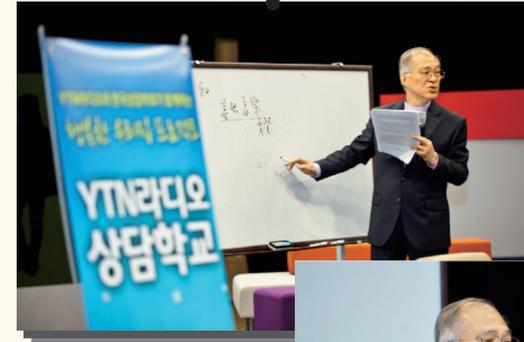
생각에 시작한 요리에도 재미를 들었다. 열무김치와 도토리묵, 무말랭이 무침, 연근

조림, 멸치 볶음을 난생 처음 만들어 봤다. 도토리묵은 지난해 가을 아파트에 널려있는 도토리가 아까워 '직접 묵을 만들어볼까?' 하고 도전해 봤는데, 완성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스파게티와 스테이크,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양식에 비해 한식이 얼마나 만들기 힘든지, 어머니와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을 했다.

아내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다녀갔는데, 아내가 있을 때는 주로 여행을 했다.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 워싱턴DC와 뉴욕을,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마이애미와 키웨스트를 둘러봤다. 마이애미에선 바하마까지 3박 4일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골프를 많이 친 것도, 여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라 별로 얘기할 것이 없는 단조로운 연수생활이었지만 나와 내 아들을 사랑으로 대해준 현지 한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다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을 많이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내가 YTN에 복귀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연수 복귀 후 첫 출근을 했던 날, 난 처음 마주한 신사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살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Raleigh)에선 이처럼 멋진 사옥을 보지 못했다. 과연 '이게 정말 YTN 사옥 맞나?' 싶었다. 수송동에서 송례문을 거쳐 상암동까지 달려오며 참 많은 시련을 겪었던 YTN의 과거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지금은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 간 시청률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YTN도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자랑스럽게 보이는 신사옥 'YTN 뉴스퀘어', YTN의 미래도 이 신사옥만큼 우뚝 솟기를 바라며 새롭게 각오를 다져본다.



희망과 위로의 시간

김혜민 PD | 라디오 뉴스제작팀

"청취자들의 영혼의 결핍을 채우자"

초보 엄마로 1년을 오롯이 살고, 다시 YTN 라디오로 돌아오며 먹었던 마음이다. 방송 현장에서는 몰랐다. 그런데 1년 동안 청취자로, 엄마로 살면서 쏟아지는 뉴스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지 알게 됐다. 그리고 대체 이런 뉴스를 전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됐다. 결심했다. 뉴스로 희망을 전할 수 없다면 뉴스 아닌 다른 것을 청취자들에게 전해주자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YTN라디오 상담학교'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가정"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결국 가정이었다.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으로 길러지는 곳, 가정이 튼튼해지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다. 상담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9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4시간씩 강의를 진행했다. 나를 알고, 배우자를 알고, 나의 자녀를 아는 시간들 그리고 유아기부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다. 강지원 변호사·김영란 위원장의 부부특강, 개그맨으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장애인을 섬기는 목회자로 변신한 전 개그맨 김정식 씨, 노점상에서 연봉 1억 원의 신화를 이룬 석봉도스트 김석봉 대표, 노년에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가수 서수남 씨 등 이렇게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강사들의 강의는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엄마들의 이름을 찾아준 상담학교"

〈YTN라디오 상담학교〉의 수강생 대부분은 가정을 섬기며 자신의 청춘을 보낸 중년 여성들이다. 엄마들은 매번 강의 때마다 울고 웃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강의를 진작에 들었다면 조

금 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하는 발전적인 후회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저는 00동에서 온 00엄마예요"라고 소개하던 엄마들은 "저는 가을을 좋아하고 상담사를 꿈꾸는 000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YTN라디오 상담학교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위로를 줬다는 작은 위로가 오늘도 힘하고 거친 뉴스들을 만드는 제게 오히려 큰 위로를 주었다.

여러분도 희망과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요? 12월 3일부터 YTN라디오(매주 수요일 ~ 금요일까지 저녁 8시 10분부터 70분간)를 통해 명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

강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기주도 학습의 힘'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나를 만나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탄생' '중년의 심리학' '내 아이 진로 찾기 프로젝트' 등



더 나은 내일을 전하는 YTN을 견학하다

김경빈 |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일산양일중학교

2014년 7월 28일, 본 기사는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으로서 YTN을 견학하게 되었다. YTN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채널로, 7년 연속 신뢰받는 미디어 1위, 3년 연속 공정한 미디어 1위, 그리고 SBS와 불과 0.01점 차이로 유용한 미디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YTN은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MBC, SBS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뉴스를 만드는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이 날 우리 발명기자들은 YTN홀에서 홍보 영상을 봤다. YTN은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뉴스 채널이다. 덕분에 승려문 화재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을 가장 먼저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또 1993년에 설립 이후로 1995년 개국방송, 2000년 남산 서울 타워 인수, 2006년 생방송 10만 시간 돌파 등 설립 20년만에 많은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홍보 영상을 보면서 평소 뉴스 채널로 알고 있던 YTN이 중립성, 공정성, 사실성을 지키면서 빠

르게 속보를 내보내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 꿈인 PD의 역할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YTN에서 CNN, CCTV, BBC같이 세계 최고의 방송국과 제휴를 맺으며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YTN을 견학한다는 것 만으로도 영광이었다.

또한, 직접 뉴스를 체험해 볼 수도 있었다. 뉴스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방송을 만드는 데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속보를 다루는 YTN에서는 속도가 생명이고 잘못된 정보 하나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뉴스는 적은 출연자가 나오고, 앞서 정보만 전달해주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체험을 통해 우리가 쉽게 보는 뉴스도 결코 쉽게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방송 PD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모든 방송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얻어서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촬영 중이던 스튜디오를 위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하였다.

위에서 바라본 스튜디오와 정면에서 바라본 스튜디오는 무척 달랐다. 시청자들을 위해 질 높은 방송을 만들려는 노력이 한 눈에 보였다. 방송을 만드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미래에 PD가 되었을 때도 질 높고 유용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이번 YTN 견학을 통해 '방송'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중학교의 작은 방송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견학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활용해보면서 방송학도의 길을 걷고 싶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방송이 진정한 최고의 방송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나중에 PD가 되었을 때도 최고의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른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전하는 YTN'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거짓 이름으로
사는 남자
이종석



거짓말을 하면
떨국질 하는 여자 박신혜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11월 12일 밤 열시 Start~
본방사수!!



상암도처有맛집



구성: 이은비 | YTN PLUS 모바일TF팀
카툰: 최재용 | 홍보·시청자팀



집밥의 여왕
<특별한 날에 먹던 '어머니의 집밥이 생각날 때!>
평범한 집밥보다는 어머니가 해주던 특식이 생각 날 때, 단돈 7천 원에 다양한 메뉴를 먹고 싶을 때, 집밥의 여왕으로 가자! 이곳의 적극 추천메뉴는 정말 딱 엄마가 만들어 준 스테이크 느낌이 나는 단돈 7천 원의 '수제 스테이크'! 포슬포슬한 감자 샐러드에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 비주얼도 굿! 맛도 굿! 집밥 느낌의 스테이크인 만큼 푸짐한 밥과 수프가 아닌 매일 매일 바뀌는 따뜻한 국이 함께 등장! 작은 크기의 스테이크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 아쉬움을 채워줄 또 하나 '불백 비빔밥'! 빨간 불고기와 푸짐한 채소에 이곳만의 수제 소스를 비벼~ 한 입 들썩 먹으면 맛도 양도 200% 충전 완료! 매서운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해물 순두부도 추천! 특별한 거 없는 오늘 같은 날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어머니의 특식'이다!

- ▶ **영업시간** : 월~토(11:00~22:00), 일요일 휴무
-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1-12
- ▶ **간단 위치** : 상암동 우편취급국 지나서 왼쪽 골목 도입부

- ▶ **메뉴** : 수제 스테이크·불백 비빔밥·추어탕·해물 순두부 각 7천 원
- ▶ **문의** : 02-304-1940



토종골
<독집한~한쌘하실래예?>
한 상 가득 차려진 푸짐한 식사를 입안 가득 느끼고 싶다면? 오늘은 토종골이다! 취향대로 골라 골라~ 돼지고기? 소고기? 그중에서도 토종골의 인기메뉴는 쌈밥제육! 별경고 실한 제육볶음과 푸짐한 쌈채소! 우렁 쌈장과 인당 나오는 된장찌개까지! 말 그대로 한 상 크게 차려 푸짐하게 싼 쌈이 입안 가득 춤춘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1인분도 2인분처럼! 2인분은 3인분처럼 준다든 거~! 3명이 간다면? 쌈밥 2개 된장찌개가 아닌 다른 찌개 1개를 시키면 양도 맛의 조화로 환상이다. 벌~건 고기보다 야들야들 담백한 고기가 당길 땐, 보쌈 정식! 쌈밥 제육과 같은 구성에 보쌈김치와 굴, 보쌈고기의 삼합을 플러스로 느낄 수 있다. 업

무 스트레스를 한 쌈 가득 싸서 없애버리고 싶은 날! '토종골 쌈밥' 어떨까?

- ▶ **영업시간** : 월~토(10:00~22:00), 일요일 휴무
-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4 DMC이안오피스텔1단지 상가2층
- ▶ **간단 위치** : CJ E&M 맞은 편 이안오피스텔 건물 2층
- ▶ **메뉴** : 쌈밥제육 8천 원, 보쌈정식·쌈밥소불고기 각 만 원, 김치찌개 6천 원
- ▶ **문의** : 02-335-2310



히노키친
<이자카야(居酒屋)에서 점심?>
이자카야를 퇴근 후 저녁 시간에만 가는 곳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점심엔 식사를, 저녁엔 술 한잔 할 수 있는 이자카야 '히노키친'의 맛을 느껴보자. 히노키친의 점심 메뉴는 돈가스, 카레, 태국식 볶음밥, 쌀국수까지!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하다. 게다가 이자카야답지 않은 저렴한 가격이라면 믿겠는가? 단품은 모두 8천 원 미만! 이자카야 하면 튀김류가 떠오르는데...튀김류가 곁들여진 커리는 비주얼도 맛도 가격도 만점! 그중에서도 새우튀김이 올라간 일본식 카레 덮밥을 추천한다. 좀 더 알뜰하게 즐기려면 세트메뉴를 주문할 것! 2인 세트에는 튀김 애피타이저와 쌀국수, 해산물 커리볶음밥까지! 이자카야에서 웬 쌀국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먹어 보자! 쌀국수 전문점 빵치는 이자카야표 쌀국수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메뉴를 먹던 히노모듬(크로켓+새우튀김+닭 어깨)은 필수! 단품 메뉴를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조금은 생소한 음식들의 조합을 조화롭게 그리고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곳이다!

- ▶ **영업시간** : 월~토(점심: 11:00~14:00, 저녁 17:00~1:00), 일요일 휴무
- ▶ **위치**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5길 36
- ▶ **간단 위치** : DMC역 9번출구 직진 후 첫 번째 골목 '달콤스시' 지나 왼쪽 골목 직진 BBQ 앞
- ▶ **메뉴** : 일본식 카페 덮밥 6천 원, 치킨카레 덮밥 7천 원, 쇠고기 쌀국수 7천 원, 수제 돈가스 6천5백 원
- ▶ **문의** : 02-302-2300



Culture Sketch

2014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공연명** 2014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일시** 2014년 11월 23일(일) 08:00 출발
- 장소** 잠실 주경기장 및 한강 둔치 일원
- 주최** YTN, 손기정기념재단
- 기타** Full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2만명 이상 참가 예상, 전년도 1만5천명 참가)

SonKeeChungPeaceMarathon

2014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다시 손기정! 그리고 통합.

마라톤대회

2014.11.23(일) 08:00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Great Son Great Step

http://www.facebook.com/sonkeechungrun
공식 페이스북 | 트위터 @클릭

종목 : Full, Half, 10km, 5km
접수기간 : 2014년 11월 5일 까지
접수 및 대회관련 문의 : 1666-1936
www.sonkeechungrun.com

NOTICE BOARD

입사 이시우 편성제작팀 09.18, 정용연 타워운영팀 10.15, 김해정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10.15, 전국부 나현호, 이윤재 10.20, 장소현 해외방송팀 10.26 / 퇴사 박성근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09.19, 전계철 편성제작팀 09.24, 홍영기 강릉지국 09.30, 방을걸 제작기술2부 09.30, 류희림 사이언스TV본부 10.02, 김태진 편집2부 10.13, 오승주 영상취재1부 06.09, 김빈나 영상아카이브팀 10.27 / 파견 배인수 편집4부 10.27

2014 한국전시회

GENESIS

세바스치앙 살가두
Sebastião Salgado

2014.10.16 — 2015.01.15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Sejong Museum of Art
An exhibition curated and designed by Lélia Wanick Salgado

현존하는 세계 최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바스치앙 살가두 한국최초 GENESIS 전시

- 공연명** 세바스치앙 살가두 GENESIS 2014 한국 전시
- 일시** 2014년 10월 16일 ~ 2015년 1월 15일
-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 주최** 동아일보, YTN, (주)벨류인베스트코리아
- 특별후원** 유니세프
- 휴관일** 매월 2,4째 월요일
- 부대행사** 도슨트 프로그램 월~금 14시 / 17시(1일 2회)
- 입장료** 일반 15,000원 / 중·고등학생(만13세~18세) 10,000원 / 초·중학생·유아(만4세~12세) 8,000원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